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15과 유혹과 타락

[고후11:3]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성경은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무섭고 험한 세상이 된 것은 태초에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친다. 타락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실이라고 가르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간단히 공부해보자.

1. 뱀을 통하여 나타난 유혹자

[계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에덴동산에서 여자를 유혹한 뱀의 정체는 사단이다. 물론 사단이 뱀으로 둔갑하여 나타난 것은 아니다. 사단이 뱀을 매개물로 이용하였다는 뜻이다.

사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사탄(שָׂטָן)”의 음역(音譯)한 말인데,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다. 구약성경에 대적한다고 번역된 말 중에 많은 경우가 사탄을 번역한 말이다.

마귀라는 말은 헬리어 “디아블로스(δίαβολος)”인데, “……로부터 쫓겨난 자”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자이다.

2. 사단의 내력(죄의 시작된 사실을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

사단이 왜 생겨났는가?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하셨는가? 아니면 사단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악신(惡神)으로 존재했는가? 어떤 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외에는 결코 어떤 존재도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된 자존자로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한다. 그러므로 사단이 된 그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임에 틀림없다.

성경에 계시된 그 내력을 살펴보자.

[사14:12-14]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계명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헬렐(הֵלֵל)”인데, 라틴어로 “루치페르(Lucifer)”라고 번역하였고, 그 철자를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루시퍼(Lucifer)”가 되었다. 우리교회에서는 “루스벨”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렘28:14-17]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음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14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15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

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16 네 무역이 풍성하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 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7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는 덮는 그룹에 대한 애가가 기록되어 있다. 그는 지음을 받은 존재요, 완전하였고 지혜가 온전하였다.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어쫓겼다.

덮는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에 모셔 서 있는 천사이다. 그 그룹 천사가 땅으로 쫓겨난 것이다. 이사야 14장에는 루스벨이 땅으로 쫓겨난 사실을 계시하였다. 이 말씀들을 대조하면 루스벨이 바로 그룹 천사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유6]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말씀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계시한다.

[계12:3,4]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4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붉은 용이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땅에 던진 사실을 기록하였는데, 이 붉은 용이 바로 사단이요 마귀이다.

[계12:7-9]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라.

이것이 루스벨이 사단이 된 내력이다. 그는 교만하여졌는데, 그 교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함으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딤펴전3:6]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마귀의 정죄 내용이 교만이라고 계시하였다.

[시119:85] 주의 법을 좇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뚫나이다.

이 말씀은 교만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좇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친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데모를 한 것이다. 그 결과 미가엘과 전쟁하고 땅으로 쫓겨났다.

3. 에덴동산에 나타나 여자를 미혹함

[창3:4,5]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고후11:3]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은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자기 처소를 떠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들의 영원한 거처이기 때문이다.

[시90:1]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원래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안에 거하도록 하셨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창조주를 떠나면 그것은 존재를 영원히 상실하게 되어 있다. 루스벨도 그 존재를 영원히 상실할 수밖에 없고, 그의 말을 듣고 그와 동조한 삼분의 일의 천사도 같은 운명이며, 이 지구의 인류도 같은 운명이다. 지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 존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골1: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자가 뱀의 미혹을 받아들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는 그리스도를 떠났다.

[요15: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루스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우주에 죄가 생겼고, 루스벨이 지구에 와서 여자를 유혹하여 여자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로 타락하였다.

[딤펵2:14] 아담이 죄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죄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4. 사람이 미혹되고 사망이 됨

[창2:16,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3:17-19]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롬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고전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다. 죽는다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환원된다는 말이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미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때문이다. 이 구원을 끝내 거절한 사람들은 마침내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다 환원될 것이다. 그것이 영원한 사망이다.

사람이 이렇게 사망이 된 상태를 죄라고 한다. 아담의 후손 중에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은 모두 사망이 운명 지어진 죄인들이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든지 아니든지 상관없다. 세상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영원한 생명을 잃은 것을 죄라고 한다. 그것이 바로 죽는 것이다. 이 죽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죽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것,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여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되는 것이다.

아담이 이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 중에 태어난 그대로는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이 생명이 없는 채 태어난다. 그것을 죄라하고 그렇게 태

어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시51:5]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48:8]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네가 깨홀하고 깨홀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갓 태어난 아기가 죄인인 것은 그가 도덕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가 장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아직 이성이 발달되지 않은 갓난아이일 때에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구주께 봉헌하고 구주의 구원을 받은 아이로 양육해야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책임이 중대하다.

[고전7:14]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니다. 그러나 아기들은 부모로 인하여 올바르게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은 확실하다. 또 하나님은 사람의 장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그 아이의 믿음으로 간주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왕상14:13]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장래를 하나님은 아셨다. 이와 같은 일은 다른 어린이들에게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어린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각별히 정신을 차려서 아이들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도록 길러야 할 것이다.